

2022 OPEN! IX.

진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선택과 결정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2:29]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1. 중요한 일 앞에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다. 그런데 할례를 행한 시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여리고 전투가 나온다. 큰 전쟁이다.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일 앞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이다. 특별히 선택과 결정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선택과 결정은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가장 아픈 경험을 해야 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후회'를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일 앞에서 제대로 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잘한 선택과 결정이었을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바보 같은 결정이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등장으로 인해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전시 모드의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회복까지 족히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할례를 야외에서 행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결정일 수 있다.

[여호수아 5:8]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 적이라도 나타나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 불 보듯 뻔한 결과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누워서 낫기를 기다리는 일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2. 결정과 선택의 열쇠

오늘 우리의 삶은 '결정과 선택'을 잘 열어야 한다. 제대로 된 문을 열어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인생 앞에 많은 결정의 순간이 있다. 직장, 결혼, 집, 심지어 뭐 먹을지에 대한 결정이다. 결정과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정과 선택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내면의 결정이 외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결정과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해야 한다. 예수님의 삶을 보라. 예수님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결정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다. 그래야 우리 모두의 죄를 구속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결정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종교인들의 태도가 '위선'이다.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한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거룩한 모습의 삶을 보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의 결정을 보라. 결국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는 결정을 한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하기로 하신 하나님과, 그일을 순종한 여호수아의 결정은 위대하다.

3. 할례는 무엇인가?

[창세기 17: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히브리어로 '브리트 밀라'이다. 브리트는 언약을 말하고, 밀라는 할례를 말한다. 그러므로 '언약의 할례'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이다. 할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과의 특별한 '구별'이 되었다. 할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의 증표가 된다. 할례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이들을 가나안 거민들과 구별하기 원하셨다.

*** 할례의 구별**

[여호수아 5:9]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의 증표는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즉,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한다.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리고에서 세상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마음의 할례

[로마서 2:29]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할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한다. 할례의 표시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구별없는 유대인들의 삶을 질타한다. 할례가 모양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증표가 아니어야 한다며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다. 결국, 마음의 할례란 굳어 있는 우리들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마음을 말한다.

[에스겔 36:26]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율법으로 형식으로만 억지로 지키는 신앙이 아닌, 마음과 겉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할례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제거된 굳은살 안의 속살의 부드러운 마음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 결정적인 순간이 결정으로 나타남**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예리고 성 함락이라는 엄청난 실제적 승리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이다. 오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결정은 부드러운 속마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5. 마음의 할례 - 회개 (진정한 회개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일)

*** 회개 - Repentance**

*‘회개가 겸손히 속이면 세상이 엎드릴 것이다. 교회의 겸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달랠 수 있는 길이다.’
(에반 로버츠 - 웨일스의 부흥을 주도한 인물)*

회개는 가장 강력한 단어이다. 그러나 회개에 대한 엄청난 오해와 부정적 견해들이 안타깝다. 내면과 실제의 의미를 함께 이해할 때 회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ㄱ) **헬라어 (change your mind) : 한 방향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다른 생각을 멈추라.**

헬라어는 언제나 내면에 초점을 둔다. (Internal)

ㄴ) **히브리어 (turn around) : 돌이키라**

히브리어는 실제적인 영역에 초점을 둔다. (Practical)

회개는 내면의 결정이 내 생각의 방법과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형적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다.

회개의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 여정을 보면 믿음의 분쟁이 마음에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분쟁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회개의 영역이다. 신약성경을 보면 회개가 없는 믿음을 언급한 적이 없다. 믿음은 회개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교회 안의 진짜 문제는 ‘상담’의 부족이 아니라, ‘회개’의 부족이다. 회개는 하나님을 반응하게 한다. 그 순간 하나님은 축복을 풀어주신다.

